

한-EU FTA 6개월 ... 광주·전남 성적은 무역 흑자 규모 반토막 '낙제점'

광주 자동차 수출 줄고 전남 축산물 수입 급증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이후 6개월간의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 성적표는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소폭 늘어난 반면, 수입은 2배 가까이 급증해 흑자 규모가 반토막 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이후 지난해 말까지 6개월동안 광주·전남 무역업체들이 EU와 교역한 무역 규모는 총 23억 1452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수출 14억 1107만달러, 수입 9억 345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 762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FTA 체결 전인 2010년 같은 기간의 흑자 규모인 9억 1329만달러의 절반 수준(44.4%)에 그친 액수다.

2010년 7~12월 광주·전남 대 EU 수출은 13억 6031만달러, 수입은 4억 4702만달러로 9억 1329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수출은 소폭(5075만달

러, 3.7%)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2배(4억 5642만달러, 102.1%) 이상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반토막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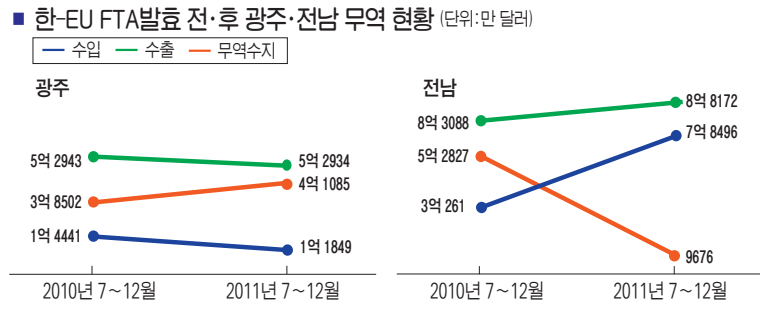
특히 전남지역의 수입이 급증했다. FTA 체결이후 전남지역은 수출 8억 8172만달러, 수입 7억 8496만달러로 9676만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수출 8억 3088만달러, 수입 3억 261만달러) 흑자 폭은 81.6%(4억 3150만달러) 급감했다. 이는 수출의 경우 5084만달러(6.1%)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4억 8234만달러(159.4%) 급증했기 때문이다.

광주는 흑자규모를 키웠다. 수출은 2010년 5억 2934만달러에서 지난해 5억 2934만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수입이 1억 4441만달러에서 1억 1849만달러로 17.9% 줄면서 흑자 규모가 3억 8502만달러에서 4억 1085만달러로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전남의 축산물 수입

이 급증했다. 실제 2010년 덴마크에서 8만 3771달러어치의 축산물을 들여왔지만 FTA 체결 이후인 지난해에는 444만 4819달러어치가 수입돼 5205%나 폭증했다. 프랑스는 30만 5755달러에서 156만 3105달러로 411%, 독일은 19만 7493달러에서 26만 1584달러로 32.4% 증가했다.

반면, 광주지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FTA 체결이후 오히려 수입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2010년 3901만 6262달러에서 지난해 1551만 1680달러로 60.2% 줄었다.



독일도 951만 1962달러에서 786만 1401달러로 17.3% 감소했다.

한편,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한-EU FTA 발효이후 7개월간 우리나라의 대 EU 무역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폭이 총 90억 7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연평균 3억 6100만달러의 무역수지를 예상한 것과 대비하면, FTA 7개월만에 25년간의 무역흑자를 날려버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인 '실버사원'을 2천명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LH의 이번 실버사원 채용은 지난 2010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에는 2천명 모집에 2만 2천여명이 몰려 평균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실버사원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 657개 단지 51만 2000가구의 LH 임대아파트에 배치돼 임대 상담과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내 시설물 안전 및 순회점검, 취약가구 지원 등 임대아파트 관리 업무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LH는 지난 2010년에 비해 근무기간을 2개월 더 늘리고, 급여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 주 5일이다.



LH는 경제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인 실버사원을 2000여명 대거 채용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열린 실버사원 발대식 모습. /연합뉴스

LH '실버사원' 2천명 채용

60세 이상 ... 임대아파트 관리 도우미 역할

LH는 이달 8일 주요 일간지와 LH 홈페이지(www.lh.or.kr), LH 임대아파트단지 게시판 등에 채용공고를 내고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 60세 이상 근로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주요 경력을 기재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올해 실버사원 2천명 외에도 고졸사원을 포함한 신입 직원 500명, 청년인턴 500명 등 3천명의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 8개월간 전국 657개 단지 51만 2000가구의 LH 임대아파트에 배치돼 임대 상담과 입주자 실태조사, 단지내 시설물 안전 및 순회점검, 취약가구 지원 등 임대아파트 관리 업무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LH는 지난 2010년에 비해 근무기간을 2개월 더 늘리고, 급여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 주 5일이다.

LH는 이달 8일 주요 일간지와 LH 홈페이지(www.lh.or.kr), LH 임대아파트단지 게시판 등에 채용공고를 내고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 60세 이상 근로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주요 경력을 기재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올해 실버사원 2천명 외에도 고졸사원을 포함한 신입 직원 500명, 청년인턴 500명 등 3천명의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철근·시멘트 줄줄이 인상 ... 레미콘은 조업 중단

건설업계 봄철 공사 '비상'

새해 벽두부터 자재 가격이 잇따라 올라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인상되고 이에 따른 레미콘 조업 중단 선언까지 나오자 건설업체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31개 대형건설사 자재담당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는 오는 9일 건자회 총회를 열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 인상, 레미콘 생산 중단 가능성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건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진년 첫날인 지난달 1일자로 시멘트 가격이 t당 6만 7500원에서 최대 7만 7500원으로 오르면서 자재값 인상의 신호탄을 쏘았다.

시멘트 제조업체 사이에 경쟁이 붙으면서 지난달 중순 t당 7만 6000원으로 인상폭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시멘트의 수요자인 레미콘과 건설 업체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철근 가격 인상이다. 주요 제강업체들은 지난달 2일 철근값을 t당 81만원(고장력 10mm, 현금가 기준)에서 84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심지어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6일에는 2월부터 3만원 더 올려 87만원을 받았다고 건설업체들이 통보했다. 여기에 시멘트 가격 인상을 둘러싼 시멘트-레미콘 업체간 충돌로 중순 레미콘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2일부터 조업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해 레미콘의 최대 수요자인 건설업계의 시름을 더욱 깊게

했다. 건설 공사의 핵심 자재인 철근, 레미콘, 시멘트가 일제히 가격 인상이 되거나 공급 중단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멘트나 제강, 레미콘 업체들도 국내 건설경기 위축과 국제 원재료값 상승의 영향으로 원가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건설업계도 인정하는 바다.

특히 철근의 경우 지난해 정부 주재로 인해 당사자들이 가격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놓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건설업계 내에 팽배하다.

또 이달 말부터 정발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 당장 봄철 공사에 큰 지장을 겪을 수 있어 건설업체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YCC '친환경 액상 제설제 S.K.O' 도로 제설·골프장 잔디 관리 인기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주)YCC(옛 여천화학·대표 조순걸)가 특허·개발한 '친환경 액상제설제 S.K.O(Snow Knock Out·사진)'가 최근 내린 폭설때 인기를 발했다. 특히 이 제설제는 철 구조물을 부식시키지 않고, 잔디·나무 등 식물 성장에도 해가 없는 친환경제품이어서 지자체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YCC의 액상제설제는 강알칼리성의 염화칼슘인 일반 제설제와는 달리 중성(pH 6.5~8.5)을 띠고 있어 주변 철 구조물이 녹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성장에도 피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YCC의 연구 결과, 액상제설제를 물과 50대50로 혼합해 잔디에 살포한 실험에서 잔디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제설제만 100% 살포한 상태에서는 12일 뒤 90% 이상 정상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도로에 있는 철 구조물이 녹슬지 않는 것은 물론 잔디·나무 등 식물 성장에도 해가 없다"며 "도로 제설이나 골프장 잔디 관리에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용 탱크(FRP, PE, 물탱크, 콘크리트탱크)에 보관할 수 있어 별도의 제설장치가 필요없고, 온·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 관리가 편리하다.

아울러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서 수조탱크를 이용하거나 살수차로 제설 작업이 가능해 살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기존에는 염화칼슘이 소금을 섞고 모래를 뿌리던 제설방식은 염화칼슘이나 염분이 섞인 모래를 다시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제설 속도가 기존 제품보다 2~3배가 빨라 제설작업시 초기 대응에 효과적이다.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품공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 같은 우수성으로 지난 2010년 조달청은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했고, 중소기업청도 성능인증을 부여했다. 또 익산시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광주시, 전남도, 서울시, 대전시 등 지자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커피전문점 불공정 조사
공정위, 카페베네 등 5개사

카페베네 등 5개 커피전문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의 자립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할리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이디야, 톰앳츠 등 5개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이 핵심 감시 대상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역 형태의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국외브랜드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23 25 27 35 44 24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233,046,50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5,677,839
3	5개 숫자 일치 1,607,665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교육과학기술부 인증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방과후교사(양성과정) 모집

과정	모집인원	과정	모집인원
신문활용 논술교실	각 60명	방과후 아동지도사교실	각 30명
사진활용 학습교실		창의적 수학교실	
자기주도 학습교실			
EBS 방과후 영어교실(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EBS영어)		EBS교육이수증 수여·EBS교사 자격증 수여	각 90명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한 3과목 동시 자격증(토요일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사+자기주도적 학습 지도사+진로탐색상담사)			각 60명

- 모집대상 : 전년대 졸업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해당분야 전공자
- 접수기간 : 2012년 2월 6일(월)~2월 24일(금)
- 교육기간 : 2012년 2월 27일(월)~3월 3일(토)까지
- 교육시간 :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수강료 : 29만원(자격증 비용 별도)
- 접수방법 : 알리오TV(www.aliotv.kr) 홈페이지 참조
- 활동지역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특 전 : 1. 광주일보 수료증 발급
2. 성적우수자 초·중·고 방과후 교사 취업 우선지원
3. 수료시험 이후 방과후 교사 자격증 수여
- 문의전화 : 062-220-0555 · H.P 018-693-6604
- ※ 자격취득 후 진로 : 창업지원, 방과후교사, 문화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방과후교육 시·군지회 모집

주최: **광주일보사**
주관: **아데크** (교육과학기술부소속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 광주지회)